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⑨

是以 無碍自在之行 方捨眞修
시이효무애자재지행 방사진수
非惟身口不端 亦乃心行迂曲
비유신구부단 역내심행우곡
都不覺知 或有執於聖敎
도불각지 혹유집어성교
法相方便之說 自生退屈 努修漸行
법상방편지설 자생퇴굴 노수점행
違背性宗
위배성종
不信有如來 爲末世衆生 開秘密之訣
불신유여래 위말세중생 개비밀지결
固執先聞 擔麻棄金也
고집선문 담마기금야
知訥頻遇如此之類 雖有解說
지눌빈우여차지류 수유해설
終不信受 但加疑謗而已
종불신수 단가의방이이
何如先受信解心性本淨 煩惱本空
하여선수신해심성본정 번뇌본공
而不妨 依解熏修者也
이불방 의해훈수자야

이 때문에 걸림 없고 자유로운 행만 본받고 참된 수행은 버리니, 몸과 마음이 단정치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구부려졌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어떤 이는 경전에서 말한 법상(法相)의 방편설에 집착하며 스스로 퇴보하는 마음을 내고, 점수(漸修)의 행에만 애를 쓴다.

그러니 성종(性宗:만법의 근원인 진실한 본성을 종지로 하는 선종을 뜻함)을 어기고 부처님이 말세 중생을 위해 열어 놓은 비밀한 말씀(오묘한 진리)을 믿지 않고 먼저 들은 것만 고집하니 이는 삼(麻)은 등에 지고 금덩이는 버리는 것과 같다.

나는 자주 이런 유의 사람을 만나 아무리 설명해주어도 그들은 믿지 않고 도리어 의심하고 비방할 뿐이었다. 다시 한번 '심성은 본래 깨끗하고 번뇌란 본래 없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의지해 수행하는 것이 어떠한가.

外攝律儀而忘拘執
외섭률의이망구집
內修靜慮而非伏捺 可謂於惡斷
내수정려이비복날 가위어악단
斷而無斷 於善修 修而無修
단이무단 어선수 수이무수
爲眞修斷矣 若能如是
위진수단의 약능여시
定慧雙運
정혜쌍운
萬行齊修則豈非夫空守默之痴禪
만행제수즉기비부공수묵지치선
但尋文之狂慧者也
단심문지광혜자야

밖으로는 계율을 지키면서도 구속이나 집착을 잊고, 안으로는 선정(靜慮)을 닦되 억지로 생각을 눌러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이른바 악을 끊되 끊으면서도 끊음이 없고, 선을 닦되 닦으면서도 닦음이 없어야 참으로 닦고 끊음이 되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으면서 아울러 온갖 행을 닦아 나간다면 헛되이 침묵만 지키는 어리석은 선이나 문자만 찾는 미친 지혜에 어찌 견주겠는가.

且修禪一門 最爲親切
차수선일문 최위친절

선정과 지혜 닦기 전념하지 않고 본성만 믿고 안주할 수 있겠는가

能發性上無漏功德 若得意修者
능발성상무루공덕 약득의수자
於一切時行住坐臥 或語或默
어일체시행주좌와 혹어혹묵
念念虛玄
염념허현
心心明妙 萬德通光 皆從中發
심심명묘 만덕통광 개종중발
安得求道 恃本性而自安
안득구도 시본성이자안
不專定慧乎
부전정혜호

또 참선 수행은 가장 친절한 문이다. 성품에 갖추어져 있는 무루(無漏)의 공덕을 개발해주니 만일 뜻을 내어 닦는 자는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또는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언제고 간에 생각 생각이 비고 심오하며, 마음 마음이 밝고 오묘하여 온갖 덕과 신통 광명이 이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도를 구함에 있어 어찌 선정과 지혜 닦기에 전념하지 않고 본성만 믿고 안주할 수 있겠는가.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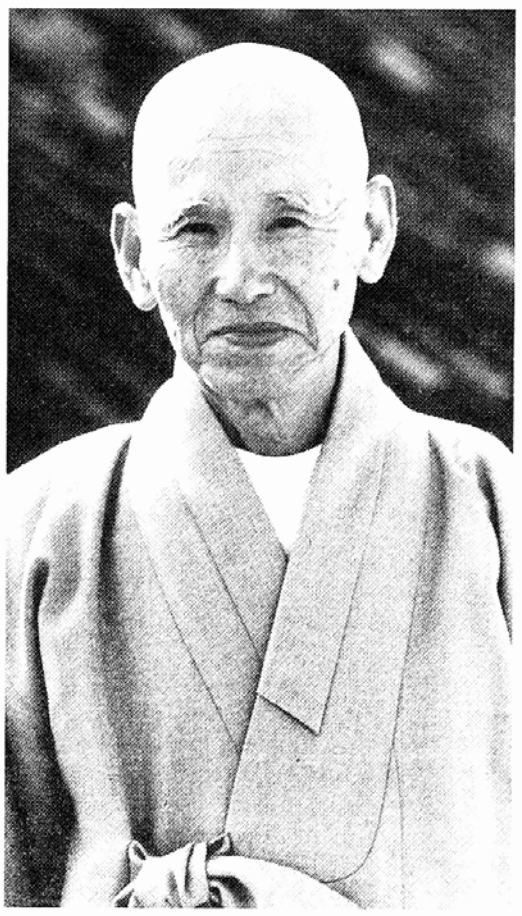
큰 스님과의 대화

호명스님

통도사 한주

붉게 물들었던 영축산이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통도사의 우람한 소나무가 더욱 웅장하게 다가온다. 영축산에서 달려내려온 초겨울 바람이 솔숲에 이르러 이내 부드러워진다. 통도사는 그렇게 솔바람으로 사람을 맞아들이는 가람이다. 시탑전에 주석하고 계신 호명스님도 그렇다. 세수 87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공부모임을 이끌고 계신다. 참된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스님들이 해야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스님은 수행을 하더라도 불교를 바르게 알고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불자의 도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웃 아픔 돌봐야 참불자"



· 1914년 서울生
· 39년 포응스님을 은사로 출가
· 해인사, 통도사 강원 졸업
· 금강산 마하연, 상원사 등 여러 선방에서 참선수행
· 진주 연화사 주지 역임
· 87년부터 통도사 시탑전(侍塔殿)에 주석

—불교에서는 아직도 문자를 가벼이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알음알이에 빠지지 말라는 뜻일텐데요. 스님께서는 책을 보시고 출가하셨습니다. 불서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몸이 아파 금강산 장안사 부근의 토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불교의 정수〉라는 일본어로 된 책을 읽었어요. 일본 진종의 목진무암(木津無庵)이라는 사람이 쓴 작은 책으로 불교의 교리를 간단하게 적어놓은 것이었어요. 불교가 뭔지 알게 해주는 책이었지요. 〈반야심경〉을 보고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세상의 좋다는 것을 다 얻어도 만족이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출가하기로 결심했어요. 책이 나를 중으로 살게 만들었죠.

경전을 놓지 않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출가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겨울 안거를 나려고 큰 선방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화두를 받았는데, 나는 화두를 수학문제 풀 듯 하는 줄 알고 대들다가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조실스님께 올라가 여쭈었더니 '망상 피우지 말고 가서 앉아 있어라'는 말만 들었어요. 세 번을 그랬습니다.

그때 선방에서는 바랑에 책을 넣어다니면 방부도 받아주지 않던 때였는데, 나는 바랑에 〈선가귀감〉을 넣고 다녔어요. 참선방에 들어가지 않고 뒷방에 앉아 〈선가귀감〉을 읽어보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은산철벽을 만나거든 휙 뛰어넘든지, 너죽고 나죽자는 식으로 주저앉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뚫으려고만 했었지요.

그 길로 선방에서 내려왔습니다. 막대기 법문만 있는 것에 회의가 들었던 거지요. 호통을 치던지, 차근차근 자상하게 일깨워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지요. 요즘도 그래요. 법문은 가려운 데를 꼭 짚어서 긁어주듯이 하는 효자손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 몇 십년을 해도 장판에 때만 묻히고, 수행이라는 이름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글과 내가 둘이 아니어야 합니다. 남이 써놓은 글도 결국은 내 것이 되어야지요. 선가에서 사교입선(捨敎入禪)이라고 말하는데, 글을 무작정 버리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글을 보다보면 문득 수행으로 돌려야겠다는 때가 옵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때 수행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수행을 하면서도 책을 버리면 안 됩니다. 수행을 하면서 책을 보는 안목이 생겼으니, 책이 마냥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행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수많은 겁을 거쳐오면서 욕심, 사심(邪心), 시기심, 질투 등을 유전하는 것처럼 이어받았어요. 이러한 유전인자를 버리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욕심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나'라는 것을 무화(無化)시키는 것이 수행의 궁극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최근 나온 책 가운데 신도들에게 한 권 권해주시지요.

▲글자가 모여있다고 해서 모두 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래 어떤 학자의 책을 봤는데, 말씀은 좋은데 자기 걸음 걸이가 없더라고요. 인생을 다듬는 데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데, 가지만 잔뜩 벌여놓은 꼴이예요. 수행의 체험에서 나오는 책이라야 매력이 있는 법입니다.

며칠 전에 변상섭이라는 사람의 책을 봤는데, 잘 썼습디다. 눈을 열어주는 글이 있어요.

(스님은 교계신문의 애독자다. 법문 자료가 될만한 것들은 스크랩도 해둔다. 변씨의 책 〈선, 신비주의인가 철학인가〉는 교계신문 기사를 보고 부산의 서점에 가서 샀으며, "아마 내가 가장 먼저 이 책을 샀을 것"이라며 환하게 웃으셨다. 변씨의 책에 대해 스님은 "선에 대해 풀이할 때도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 선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촌평하셨다.)

—공부모임을 지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모임인지요.

▲경심회(耕心會)라는 모임이 있어요. 경심회라는 이름은 내가 붙였지요. 예전부터 모임을 하면, 이 이름을 써야겠다고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어지요. 재가자들 모임인데, 한 3년 됐어요. 처음에는 청년들과 보살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보살과 거사들이 반반이예요. 왔던 사람들이 모임이 괜찮았다고 생각했는지 다음에 올 때는 친구들 손목잡고 와서 지금은 한 오십명 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여섯시에 모여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왜 이 모임을 하느냐 하면, 불교가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 '무색성향미촉법(無色聲香味觸法)'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가운데 '무'자가 무서운 것입니다. 거울이라는 자리입니다. 또 공(空)의 뜻을 알아야 쉬는 도리를 알고, 그래야 세상살이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내가 강의하고 함께 토론합니다. 반야심경은 끝났고 금강경 강의를 마치면 참선하는 법을 가르칠 생각입니다. 참선을 하기 전에 경전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저기 기차가 있다는 것만 알려주지 말고, 궤도에는 올라가도록은 해줘야지요. 그래야 서울

입방안내

금강선원 선문장은 재가불자들을 위한 참선수행 정진도량입니다.

일년내내 개방하며,

수행일정은 수행자 본인의 자유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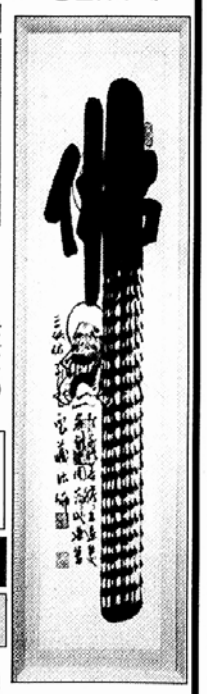
입 · 출소가 자유롭고,

남 · 녀 구분 없이 누구나 수행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혜거스님의 법문과 개인 상담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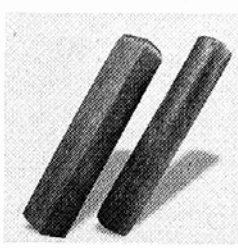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선수련원 禪門莊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 1리
전화 033) 433-5845~6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光彩'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세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梵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cmhouse.net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766-0057 · 0058
E-mail :unjang21@ kornet21. net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013698-02-04590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원주 덕화산 운장사 달마선원

벼락 맞은
대추나무 벽조목 도장
벽조목은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신비의 마력을 지닌 영물로 각종 패물 부적인장, 호신구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벽조목을 지니면 살아가는데에 야기되는 모든재앙과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며, 액운을 물리치고 운명을 길하게 하며 재물운이 강해 사업하시는 분의 성공을 지켜드립니다.
이 벽조목은 우연히도 1999년 추석에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에서 구입한 제품입니다. 수령은 300여년이 된 벽조목이 발견된 것을 구입 제재하여 현대감각에 맞는 도장 및 공예품으로 만들어 다양한 제품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 벽조목은 하늘이 주신 귀한 보물이므로 인연이 되시는 분께만 공급코저하오니 귀하의 출세와 부귀를 얻고 가정과 사업이 발전하여 소원 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氣 印 當
031-315-7316(팩스겸용)
016-305-7316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특허상품
국내 최초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지회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 징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옴자·만자무늬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람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랑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스님께 가사 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 팔난을 소멸함.

판매가격표		
저고리 바지, 조끼	男女	130,000
누비 (上,下)	男女	180,000
누비방한복 (上)	男女	130,000
누비조끼	男女	60,000
누비동방 (두루막)	男女	180,000
바랑		30,000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556-8848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